문말조사 ‘ね’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에 관한 고찰

金姓衍*
gmodesty@gmail.com

<目次>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의 검토
3. 조사방법
4. ‘ね’의 음성적인 특성과 고찰
5. 나오며

主題語: 문말조사(sentence-final particles), 인토네이션(intonation), 화자의도(speaker’s intention), 음성적인 특성(voice features), 음성(speech)

1. 들어가며

최근의 일본어 교육의 관심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모아지고 있음에 따라 자연스러운 음성언어로 원활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회화에는 문말조사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자연스럽다고까지 한다(小山哲春(1997)[1], 片桐恭弘(1997)[2]). 문말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달되겠지만 화자의 세부적인 표현 의도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워(杉藤美代子(2001)[3]),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ね’ 가 사용된 문장의 음향음성학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기초단계로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이하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

* 漢陽大學校 日本言語 文化學科 時間講師

1) 小山哲春(1997)「文末詞と文末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97-119
2) 片桐恭弘(1997)「終助詞と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235-256
3) 杉藤美代子(2001)「終助詞「ね」の意味・機能と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3』くろしお出版, pp.3-15

난 문말 조사 ‘ね’가 사용된 문장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일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함을 제기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진정한 소통이라는 공동선(共同善)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우선, 일본어 문법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말 조사[4] ‘ね’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후, ね’의 기능과 인토네이션과의 관점,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益岡隆志외(2000)[5]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ね’이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면 동의요구가 되고, 자신의 지식이 불확실 한 경우에는 확인이 된다고 하였다.

‘ね’의 기능과 인토네이션과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森山卓良(1989)와 大島デイヴィッド義和(2013) 등이 있다. 森山卓良(1989)[6]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ね’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ね’는 상승조와 하강조의 인토네이션으로 실현되는데, 상승조일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촉구하는 경우에, 하강조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ね’는 청자의 반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평서문에 사용되지만 청자에게 반응을 요구할 때는 상승조의 인토네이션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大島デイヴィッド義和(2013)[7]도 청자가 명제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ね’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공유인식이나 발화 내용이 담화 현장에서의 탐색 결과 얻어진 정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회, 선행 발화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 의미로

---

4) ‘ね’는 연구자에 따라 문말사, 문말 조사, 종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본고에서는『新版 日本語教育事典』(2006:22)에 있는 문말 조사와 음조라는 설명에 따라 문말 조사라고 표기하고 이하의 명칭을 통일한다.

5) 益岡隆志他(1999)『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 p.53

6) 森山卓郎(1989)「文の意味とイントネーション」『講座日本語日本語教育Ⅰ日本語要説』明治書院, pp.172-196

7) 大島デイヴィッド義和(2013)「日本語におけるイントネーション型と終助詞機能の相関について」『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 pp.47-63

사용되는 경우 강조상승조의 인토네이션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확인 요구나 승인 요구를 나타낼 때는 의문상승조, 공유인식이나 조회에 감정 표현이 더해진 경우는 평조・상승하강조의 인토네이션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ね’의 인토네이션에 관한 논문으로는 박수미(2001)와 이지아(2005) 등이 있다. 박수미(2001)[8]는 한국인 학습자가 발음한 ‘ね’의 인토네이션에 관하여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인 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자연성 평가 및 의미 판정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학습자는 ‘동의’와 ‘확인’을 상승조로, ‘공감’, ‘고려중’, ‘거절’을 승강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은 승강조이면서 ‘ね’의 지속시간이 짧으면 ‘공감’으로,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려중’이나 ‘거절’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화자가 각 발화 의도별 한국인 학습자의 학년에 따른 자연성 평가와 의미 판정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다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학습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연성 평가나 의미 판정에서 높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인토네이션 기호가 표기된 것을 보고 발음하게 한 결과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음성분석에 있어서 감정표현의 음향 파라메타로써 인정되고 있는 피치의 최고치와 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지아(2005)[9]는 교양일본어 교재 속에서 어느 정도 문말 조사 ‘よ’와 ‘ね’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よ’와 ‘ね’의 억양표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발화하도록 하여 자연성을 평가하였다. ‘ね’의 경우 억양표기 없이 발음한 경우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웠지만 억양표기를 보고 발음했을 때는 자연스러웠다고 하면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억양표기 기호 유무에 따라 인토네이션 발음에 민감한 반응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본어 모어화자의 청취에 의한 자연성 평가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른 문말 조사 ‘ね’의 자연스러운 발화가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습득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일본어 학습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 초기부터 표현 의도에 따른

8) 박수미(2001)「일본어 문말 조사「ね」의 발화 의도와 인토네이션에 관한 고찰」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90

9) 이지아(2005)「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문말 인토네이션 습득 연구-문말사 「よ」「ね」를 중심으로」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72

체계적인 ‘ね’의 인토네이션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ね’에 관한 음성적인 특징이 음성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과 중급의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사방법

3.1 조사 목적

초급과 중급의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현 의도에 따른 ‘ね’가 사용된 문장의 음성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과 중급의 한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ね’ 문장의 음성적인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2 조사 자료 및 조사 대상자

조사 문장은 아래에 제시한 田中真一他(2001)[10]에 나온 (1)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화자가 청자도 영화를 보았고 잘 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의도로 발화한 내용이다.

(1) とてもすばらしいえいがでしたね。

田中真一他(2001)는 문말 인토네이션의 종류로 음 높이의 상승, 하강 혹은 그대로 유지하는 평조라는 3종류를 제시하였다. 대략적으로 상승의 인토네이션은 청자의 반응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하강의 인토네이션은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문말 조사의 의미와 결합하여 ‘상승’은 청자에 대한 호소를, ‘의문상승’은 청자에 대한 질문을, ‘하강’은 화자의 감정을, ‘상승하강’은 청자에 대한 호소와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문 (1)과 같이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도로 사용된 경우 상승의 문말 인토네이션으로 실현된다는 田中真一他(2001)에서의 지적에 따라, 일본어 모어화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본어 모어화자는

10) 田中真一·窪園春夫(2001)『日本語の発音教室』くろしお出版, pp.120-125

동경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 15명으로 (남3명, 여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30대 2명, 50대 1명의 남자 3명, 20대 6명과 30대 2명과 40대 2명과 50대 2명의 여자 12명이다. 한국인 학습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일본어를 학습한지 3개월 정도 된 초급수준의 학습자(20대의 남자 8명과 여자 7명)와 일본어를 학습한지 1년 이상이 된 경어표현과 수수표현 등 초급 과정의 일본어 학습을 마친 중급학습자(20대의 남자 8명과 여자 7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3.3 조사 방법

민광준(2008)[11]은 인토네이션에는 말하는 사람의 미묘한 심리 상태와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기능이 있고, 이 정서적 기능은 음 높이의 변화의 폭, 길이, 세기, 음색의 변화 등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前川喜久男他(2002)[12]에서도 음성에 나타난 화자의 표현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 높이의 폭, 길이, 세기, 모음의 음조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ね’ 높이의 최고점과 최저점, 높낮이의 폭, 강세의 최고점과 최저점, 강세의 폭, 길이, 모음 특성(F1, F2값), 인토네이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3]. 그리고 ‘ね’의 표현 의도에 따라 그 앞부분이 강조되어 발음된다는 田中真一他(2001)[14]의 지적에 따라 ‘ね’가 사용된 문장의 앞부분의 음성적인 특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문장을 제1구(とても), 제2구(すばらしい), 제3구(えいがでしたね)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한다.

녹음은 조용한 교실에서 녹음기(SONY PCM-D50)를 사용하고 ‘ね’의 의도와 발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3회 이상의 연습을 거쳐 화자의 의도대로 가장 잘 녹음된 것을 사용하였다. 녹음한 음성은 샘플링 주파수 16kHZ, 16bit, mono로 변환한 후 praat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측정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

11) 민광준(2008)『일본어음성학입문』건국대학교 출판부, pp.205-212

12) 前川喜久男・北川智利(2002)「音声はパラ言語情報をいかに伝えるか」『Cognition Studies』9(1), Japanes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46-66

13) 『新版 日本語教育事典』(2006) 前掲書, p.29에 의하면 포먼트(formant)는 성도의 공진에 의한 것으로, 보통 유성음, 특히 모음의 경우 낮은 쪽에서부터 제1포먼트, 제2포먼트라고 부르는데 FI, F2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모음은 이들 FI, F2의 상대적인 분포로 구별된다고 한다. 음색의 차이는 성도 내에서 공명해 증폭되는 주파수성분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증폭의 방법은 성도의 장단에 관계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나 어린이는 포먼트역이 높은 주파수방향에 위치한다고 한다. FI은 입의 개방 정도를 나타내고, F2는 혀의 전후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14) 田中真一・窪園晴夫(2001) 前掲書, pp.120-125

4. ‘ね’의 음성적인 특성과 고찰

4.1 문말조사 ‘ね’의 높이의 특성

‘ね’의 높이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최고점과 관련해서는 일본어화자는 232.08Hz, 중급학습자는 162.08Hz, 초급학습자는 198.73Hz이고, 최저점과 관련해서는 일본어화자는 183.51Hz, 중급학습자는 135.47Hz, 초급학습자는 150.04Hz로 나타났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학습자가 ‘ね’의 높이의 최고점에서는 p<.001 수준에서, 최저점에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15].

<표 1> ‘ね’의 높이(1)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높이최고점	232.08	162.08	-3.42	***	198.73	-1.679
높이최저점	183.51	135.47	-2.55	*	150.04	-1.721
폭	48.57	26.62	-1.88		48.69	-0.9747

주: * p<.05, ** p<.01, *** p<.001

<표 2> ‘ね’의 높이(2)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171.75	108.44	11.96	101.34	81.56	3.73	100.93	86.84	4.64
최대값	289.54	245.01	115.65	242.57	198.86	71.53	419.50	209.07	216.13
범위	117.79	136.58	103.70	141.23	117.30	67.80	318.56	122.23	211.48
SD	33.35	33.87	32.13	50.76	47.30	21.70	90.09	47.35	57.28

일본어 학습이 더 진행된 중급 학습자가 일본어 모어화자와 더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ね’의 높이의 폭을 비교하면 일본어 모어화자가 48.57Hz와 중급 학습자가 26.62Hz, 초급 학습자가 48.69Hz로 나타나, 초급 학습자가 일본어모어화자와 유사하게 나왔으나, 높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211.48Hz나 되는 것으로 보아

15) 통계적 처리(Mann-Whitney U검증)는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간에 실시하고 지면상 하나의 표로 제시하였다.

서, 이는 일부 학습자의 학습 초기에 나타나는 과장된 높이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2 문말조사 ‘ね’의 강세의 특성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최고점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76.98dB, 중급 학습자가 69.94dB, 초급 학습자가 76.53dB, 최저점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61.66dB, 중급 학습자가 54.31dB, 초급 학습자가 58.48dB로 나타났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의 ‘ね’의 강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 ‘ね’의 강세(1)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강세최고점	76.98	69.94	-2.67 *	76.53	-0.020
강세최저점	61.66	54.31	-2.88 *	58.48	-0.725
강세 폭	15.31	15.623	-0.31	18.05	-0.933

주: * p<.05, ** p<.01, *** p<.001

중급 학습자의 강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의 평균이 일본어 모어화자와 더 유사하였으나 <표 4>를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폭이 커서 일본어 모어화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력과 상관없이 초급 학습자가 오히려 일본어 모어화자와 유사한 경향도 확인되었다.

<표 4> ‘ね’의 강세(2)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인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61.08	49.34	3.95	62.00	49.34	4.12	66.05	41.82	7.53
최대값	89.44	79.51	25.48	101.2	86.63	44.56	84.63	66.37	29.99
범위	28.36	30.18	21.53	39.16	41.27	40.44	18.58	24.55	22.45
SD	8.15	7.55	6.33	12.07	10.31	9.23	4.88	7.07	6.58

4.3 문말조사 ‘ね’의 길이의 특성

발화 전체 문장과 ‘ね’의 길이에 대한 특징은 <표 5>와 같다. 우선 ‘ね’의 길이를 비교하면 일본어 모어화자는 0.34ms, 중급 학습자는 0.29ms, 초급 학습자는 0.27ms로 나타났다. 전체 문장 길이를 비교하면 일본어 모어화자는 1.85ms, 중급 학습자는 2.02ms, 초급 학습자는 2.48ms로 나타났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의 사이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의 사이의 ‘ね’의 길이는 p<.05 수준에서, 전체 문장의 길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모어화자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전체 문장 및 ‘ね’의 길이(1) (단위 ms)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ね’의 길이(A)	0.34	0.29	-1.39	0.27	-1.99 *
문길이(B)	1.85	2.02	-1.27	2.48	-4.12 ***
(A)/(B) 비율	18.05	14.30	-0.73	10.95	-2.21 *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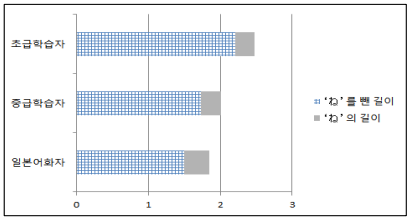
전체문장에서 차지하는 ‘ね’의 길이도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의 사이에는 0.34ms, 0.29ms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의 사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모어화자 비슷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전체 문장 및 ‘ね’의 길이(2) (단위 m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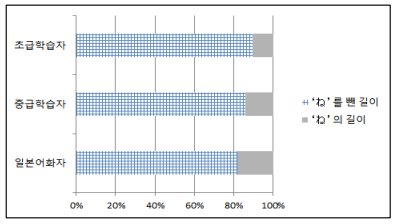
조사 항목	일본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ね’길이 (A)	문길이 (B)	(A)/(B) 비율	‘ね’길이 (A)	문길이 (B)	(A)/(B) 비율	‘ね’길이 (A)	문길이 (B)	(A)/(B) 비율
최소값	0.10	1.35	7.16	0.16	1.54	7.59	0.14	1.83	5.37
최대값	0.56	2.19	26.65	0.42	2.90	19.17	0.43	3.37	15.18
범위	0.46	0.84	19.48	0.26	1.36	11.59	0.30	1.54	9.81
SD	0.13	0.21	6.33	0.07	0.38	3.17	0.07	0.42	3.14

특이한 점은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장길이가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ね’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반면에,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장의 길이가 가장 긴 반면에 ‘ね’가 차지하

는 비율이 가장 작다는 점이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자를 읽고 입으로 말하는 처리 속도가 느려서 전체적으로 분절음의 길이가 길어져 문장 전체의 길이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문자를 읽고 말하는 처리속도가 빨라져 ‘ね’의 길이를 제어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어 일본어 모어화자에 근접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ね’의 길이(단위 ms)



<그림 2> ‘ね’의 길이비율(단위 %)

4.4 문말조사 ‘ね’의 모음의 음성적 특성

모음 특성을 비교하면 F1의 값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616.97Hz, 중급학습자가 587.62Hz, 초급학습자가 541.24Hz로, F2의 값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2128.82Hz, 중급학습자가 1755.49Hz, 초급학습자가 1988.92Hz로 나타났다. $p<.05$ 수준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F1값은 초급 학습자와, F2값은 중급 학습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 ‘ね’의 모음 특성(1)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F1	616.97	587.62	-0.76	541.24	-2.05 *
F2	2128.82	1755.49	-2.67 **	1988.92	-0.68

주: * $p<.05$, ** $p<.01$, *** $p<.001$

F1값은 입의 개방정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개방도가 커진다고 하고, F2값은 혀의 위치의 전후에 따라 결정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전설 쪽에 위치한다고 한다. 개구도의 경우 일본어 모어화자가 크고, 중급 학습자, 초급 학습자의 순으로 나타났고, 혀의 위치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가장 전설 쪽에 위치하고 초급 학습자, 중급 학습자의 순으로 후설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모음의 특성과 화자의 표현 의도를 나타내는 음성적인 특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표 8> ‘ね’의 모음 특성(2)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F1	F2	F1	F2	F1	F2
최소값	451.49	1271.32	437.28	1005.00	410.41	1004.06
최대값	817.49	2792.31	826.77	2247.77	701.93	2797.79
범위	366.00	1520.99	389.49	1242.77	291.52	1793.73
SD	108.54	350.27	112.50	384.51	79.52	509.97

4.5 각 구의 음성적인 특성

4.5.1 각 구의 높이의 특징

조사 문장 ‘とてもすばらしいえいがでしたね’에 대하여 ‘とても’를 제 1구, ‘すばらしい’를 제 2구, ‘えいがでしたね’를 제 3구로 하여 음성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의 각 구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 제1구의 최고점이 197.64Hz, 높이의 폭이 29.33Hz, 제2구의 최고점이 208.47Hz, 최저점이 168.02Hz, 높이의 폭이 40.4Hz, 제3구의 최저점이 136.80Hz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도 제1구의 최고점이 225.01Hz, 높이의 폭이 44.81Hz, 제2구의 최고점이 219.72Hz, 최저점이 178.82Hz, 높이의 폭이 40.90Hz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 일본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사이의 음성적인 특징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9> 각 구의 높이, 폭 (1)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높이	제1구	최고점	302.44	197.64	-3.75 **	225.01	-2.59 *
		최저점	205.33	168.31	-1.55	180.20	-1.05
		폭	97.11	29.33	-3.67 **	44.81	-2.75 *
	제2구	최고점	338.27	208.47	-4.00 ***	219.72	-3.71 ***
		최저점	242.43	168.02	-3.09 **	178.82	-3.71 **
		폭	95.83	40.45	-3.33 ***	40.90	-3.09 **
	제3구	최고점	228.66	196.81	-1.26	210.21	-1.30
		최저점	185.71	136.80	-2.79 *	150.30	-1.59
		폭	42.95	60.01	-1.09	59.91	-0.14

주: * p<.05, ** p<.01, *** p<.001

4.5.1.1 제 1구의 높이의 특성

‘とても’에 해당하는 제1구의 높이의 폭에 있어서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를 비교하면 중급 학습자의 높이의 폭이 현저하게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의 진행에 맞추어 적절한 음성 표현 방법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어인 한국어의 음성적인 특징이 전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0> 각 구의 높이, 폭(2)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1구			제1구			제1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218.21	132.21	25.36	105.32	103.7	1.11	124.90	104.99	4.10
최대값	379.99	312.55	178.58	304.25	242.13	85.46	366.06	265.85	141.01
범위	161.79	180.34	153.21	198.93	138.44	84.35	241.18	160.86	136.91
SD	51.45	43.89	52.97	59.03	52.85	24.02	83.82	55.70	41.45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를 비교하면 평균값에서는 중급 학습자보다는 초급학습자가 모어화자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하면 개인의 차이가 큰 것을 보면 모어화자의 음성적인 특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1.2 제 2구의 높이의 특성

제2구에 해당하는 ‘すばらしい’를 일본어 모어화자는 제1구의 302.44Hz 보다 높은 338.27Hz로 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영화가 잘 되었다고 동의를 구하는 문장이므로 ‘すばらしい’에 문장의 초점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ね’의 표현 의도에 따라 그 앞부분이 강조되어 발음된다는 田中真一他(2001)[16]의 지적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표 11> 제2구의 높이, 폭(3)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2구			제2구			제2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243.95	175.17	15.70	116.50	102.21	5.76	114.99	108.90	3.13
최대값	435.62	307.35	164.80	323.79	258.14	148.98	372.09	271.94	106.40
범위	191.68	132.18	149.09	207.29	155.94	154.74	257.09	163.04	103.28
SD	51.29	37.36	37.30	65.37	58.30	38.87	78.345	53.28	36.33

16) 田中真一·窪園晴夫(2001) 前揭書, pp.120-125

이에 반해 중급 학습자의 경우 제2구는 가장 높게 실현되고는 있으나 일본어 모어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폭이 작고, 최고점의 최소값이 일본어모어화자의 최저점의 최소값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리의 폭이 작은 이유로 악센트핵이 있는 'すばらしい'의 'し'에서 충분히 하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제 1구의 'と'에서 충분히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강할 폭이 작아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는 'と'에서 'て'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상승이 시작되었으나 초급 학습자의 경우 'と'에서부터 높게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히려 제2구가 제1구보다 낮은 현상을 보였다.

4.5.1.3 제 3구의 높이의 특성

제3구에 해당하는 'えいがでしたね'의 높이의 폭을 보면,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중급, 초급 학습자보다 제1구와 제2구의 높이에 비해 낮게 나타나 문말에서 높이를 억제하는 일본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급이나 초급학습자의 경우는 그 폭이 일본어 모어화자보다 큰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악센트핵이 있는 'すばらしい'에서 높이를 하강하지 않고 문장이 끝나가는 제3구에서 하강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ね'가 사용된 문장의 제1구, 제2구, 제3구에 나타난 높이의 특성을 통하여 일본어 학습의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단어를 결합한 문장을 음성으로 표현할 때 악센트 부여 규칙에 따라 인토네이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결여는 화자의 표현의도를 표현하는 'ね'를 발화할 때도 작용하여 그 문장에서 초점이 놓이는 부분과 연동하여 강조해 음의 높이로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2> 제3구의 높이, 폭(4) (단위 Hz)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3구			제3구			제3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저점	최저점	폭
최소값	169.56	139.91	5.3	105.75	82.45	3.56	107.05	70.79	3.43
최대값	278.39	236.34	88.33	323.79	196.82	137.37	379.94	222.08	171.86
범위	108.83	96.43	83.03	218.04	114.36	133.81	272.90	151.29	168.43
SD	32.57	25.66	24.45	70.32	41.78	39.01	86.20	53.75	56.30

4.5.2 각 구의 강세의 특성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의 각 구에서의 강세의 특성을 비교하면 제1구의 최고점이

71.12dB, 최저점이 54.19dB, 제2구의 최고점이 70.34dB과 최저점이 55.13dB, 제3구의 최고점이 67.95dB, 최저점이 51.89dB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표 13> 각 구의 강세, 폭(1)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강세	제1구	최고점	80.64	71.12	-3.50 ***	80.50	-0.18
		최저점	64.40	54.19	-3.29 **	52.05	-2.05 *
		폭	16.24	17.01	-0.76	28.45	-2.38 *
	제2구	최고점	81.30	70.34	-3.62 ***	80.99	-0.02
		최저점	64.65	55.13	-3.04 **	57.63	-1.97
		폭	16.64	15.21	-1.05	23.37	-2.43 *
	제3구	최고점	79.25	67.95	-3.71 ***	78.54	-0.06
		최저점	62.45	51.89	-3.17 **	46.85	-3.34 ***
		폭	16.80	16.07	-0.22	31.70	-3.25 ***

주: * p<.05, ** p<.01, *** p<.001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도 제1구의 최저점이 52.05dB, 강세의 폭이 28.45dB, 제2구의 강세의 폭이 23.37dB, 제3구의 최저점이 46.85dB, 강세의 폭이 31.70dB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 일본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사이의 음성적인 특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5.2.1 제 1구의 강세의 특성

‘とても’에 해당하는 제1구의 강세의 폭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초급 학습자는 강세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각 구의 강세, 폭(2)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1구			제1구			제1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74.07	53.84	8.18	63.72	40.66	2.91	71.39	31.46	2.80
최대값	91.04	72.19	26.79	80.08	69.15	26.02	87.54	78.09	42.36
범위	16.99	18.35	18.60	16.36	28.50	23.11	16.15	46.55	39.56
SD	5.96	6.06	5.52	5.23	7.88	6.83	4.51	16.48	14.38

4.5.2.2 제 2구의 강세의 특성

일본어 모어화자는 제1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일본어 모어화자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제2구의 강세, 폭(3)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2구			제2구			제2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69.99	53.87	11.64	60.51	43.75	9.88	73.47	41.77	8.68
최대값	91.37	77.80	24.94	80.29	67.92	24.19	88.33	73.61	37.99
범위	21.38	23.93	13.30	19.79	24.17	14.31	14.86	31.83	8.55
SD	6.29	7.45	3.36	5.77	6.79	3.97	4.17	9.54	29.31

4.5.2.3 제 3구의 강세의 특성

제3구에서도 일본어 모어화자는 앞의 제1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중급 학습자의 경우도 일본어 모어화자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초급 학습자의 경우 유의하게 강세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제3구의 강세, 폭(4) (단위 dB)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3구			제3구			제3구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고점	최저점	폭
최소값	67.35	51.78	9.09	56.07	40.38	5.85	68.99	25.13	11.97
최대값	91.30	78.75	25.25	78.79	64.29	26.13	87.71	68.59	57.02
범위	23.95	26.98	16.15	22.69	23.92	20.27	18.72	43.47	45.06
SD	7.15	8.03	5.25	5.99	6.98	5.84	5.66	11.72	12.68

4.5.3 각 구의 길이의 특성

각 구의 길이는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급 학습자를 보면 제1구가 0.34ms, 제2구가 0.61ms, 제3구가 0.89ms이고, 중급 학습자는 제1구가 0.40ms 제2구가 0.62ms, 제3구가 1.00ms로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초급 학습자는 제1구가 0.51ms, 제2구가 0.81ms, 제3구가 1.17m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게 나왔다.

<표 17> 각 구의 길이(1) (단위 ms)

조사 항목		일본어 화자	중급 학습자	*z*	초급 학습자	*z*
길이	제1구	0.34	0.40	-1.94	0.51	-4.31 ***
	제2구	0.61	0.62	-0.31	0.81	-3.40 ***
	제3구	0.89	1.00	-1.88	1.17	-2.84 **

주: * p<.05, ** p<.01, *** p<.001

학습자의 경우는 중급 학습자에서 초급 학습자로 갈수록 모라 속도가 증가할수록 각 구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급 학습자로 갈수록 분절음을 읽고 발음하는 언어처리속도가 느린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7> 각 구의 길이(2) (단위 ms)

조사 항목	일본어모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제1구	제2구	제3구	제1구	제2구	제3구	제1구	제2구	제3구
최소값	0.21	0.35	0.58	0.29	0.40	0.75	0.38	0.59	0.82
최대값	0.48	0.35	1.13	0.53	1.10	1.30	0.69	1.07	1.75
범위	0.28	0.35	0.54	0.24	0.70	0.56	0.31	0.47	0.93
SD	0.064	0.08	0.12	0.07	0.17	0.17	0.09	0.15	0.26

4.6 ‘ね’의 인토네이션 유형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ね’의 인토네이션 유형을 보면,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는 승강조가 67%, 상승조가 33%로 승강조가 많이 나타났지만 상승조의 비율도 적지 않아 田中真一他(2001)[1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토네이션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는 승강조가 87%, 상승조가 7%, 하강조가 7%로 승강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고,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강조가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는 승강조가 60%, 상승조가 33%, 하강조가 7%로 나타나, 중급 학습자 보다 오히려 일본어 모어화자와 더 유사하게 발음하는 양상을 보여서 학습의 진행 정도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田中真一·窪園晴夫(2001) 前揭書, pp.120-125

<표 18> ‘ね’의 인토네이션 유형(단위 %)

	일본어화자	중급학습자	초급학습자
↷ (승강조)	66.7	86,7	60.0
↗ (상승조)	33.3	6.7	33.3
↘(하강조)	0	6.7	6.7

4.7 고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ね’의 높이의 폭이 48.57Hz로 상당히 큰데 반해 한국인 학습자는 그 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48.57Hz를 100%로 환산하였을 때 중급 학습자는 54%에 지나지 않는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48.57Hz로 일본어 모어화자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높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차에 의한 것으로, 학습의 진행 정도와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ね’의 강세를 보면 일본어 모어화자와 학습자간에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중급학습자와 일본어모어화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중급학습자의 강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ね’의 길이를 보면 일본어 모어화자는 전체 문장길이에서 ‘ね’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데 반해서, 중급학습자에서 초급학습자로 갈수록 전체문장길이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ね’의 길이는 오히려 짧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초급학습자가 분절음을 발음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ね’가 표현하는 화자의 표현의도를 인식하지 못해 다른 분절음과 같이 길이를 배분하여 발음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화자의 의도에 따라 ‘ね’의 길이를 제어하게 되어 일본어 모어화자에 근접해 간다는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ね’가 문장전체의 인토네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각 구의 높이에 있어서 일본어 모어화자는 화자의 표현의도가 있는 초점구인 제2구를 가장 높게 발음하고 악센트핵에서 급격하게 하강하여 문말로 감에 따라 높이를 억제하여 발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습자는 학습 정도와 상관없이 각 구의 높이를 거의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고 악센트핵이 있는 제2구에서 하강하지 않고 제3구에 와서 높이를 억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각 구의 강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어 모어화자는 초점이 있는 제2구가 상대적으로 세고, 제3구에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기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ね’의 인토네이션 유형을 보면, 일본어 모어화자는 승강조나 상승조로 발음하는데 반해서 학습자들은 여기에 하강조의 인토네이션으로도 발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어 모어화자의 인토네이션 유형에 있어서 田中真一他(1999)[18]와 森山卓郎(1989)[19]에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반응을 촉구하는 경우에 상승조로 실현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인토네이션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음성적인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통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ね’가 사용된 문장의 음성적인 특징의 많은 곳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는 점과 문장에서의 ‘ね’의 길이를 제외하고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일본어 학습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별다른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일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기 위하여 화자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는 문말 조사 ‘ね’가 사용된 문장의 음성에 나타난 일본어 모어화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어 모어화자와 근접해진 항목으로 ‘ね’가 사용된 문장에서의 ‘ね’의 길이의 실현을 들 수 있다. 다른 음성적인 특징에 비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ね’의 길이를 제어하는 능력이 일본어 모어화자에 근접해 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음성 항목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와 차이점을 보였는데,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ね’가 사용된 문장과 ‘ね’에 나타난 높이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습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중급 학습자와 초급 학습자 모두 일본어 모어화자와 차이점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본어 학습 기간과 ‘ね’를 비록한 ‘ね’가 사용된 문장의 인토네이션 실현 능력과는

---

18) 田中真一·窪園春夫(2001)『日本語の発音教室』くろしお出版, pp.120-125

19) 森山卓郎(1989)「文の意味とイントネーション」『講座日本語日本語教育Ⅰ日本語要説』明治書院, pp.172-196

별개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일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ね'의 표현 의도를 나타내는 음성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고, 표현 의도별 음성적인 특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ね'의 인토네이션을 특징짓는 지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각 실험을 통하여 화자의 표현 의도에 관여하는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의 조사만으로 'ね'의 인토네이션을 구성하는 음성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유의미하게 나온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민광준(2008)『일본어음성학입문』건국대학교 출판부, pp.205-212
박수미(2001)「일본어 문말 조사「ね」의 발화 의도와 인토네이션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90
이지아(2005)「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문말 인토네이션 습득 연구:문말사「よ」「ね」를 중심으로」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72
日本語教育学会編(2006)『新版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p.22-29
小山哲春(1997)「文末詞と文末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97-119
片桐恭弘(1997)「終助詞と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235-236
杉藤美代子(2001)「終助詞「ね」の意味・機能と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3』くろしお出版, pp.3-16
田中真一・窪園春夫(2001)『日本語の発音教室』くろしお出版, pp.120-125
益岡隆志他(1999)『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 p.53
森山卓郎(1989)「文の意味とイントネーション」『講座日本語日本語教育Ⅰ日本語要説』明治書院, pp.172-196
大島デイヴィッド義和(2013)「日本語におけるイントネーション型と終助詞機能の相関について」『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開発研究科, pp.47-63
前川喜久男・北川智利(2002)「音声はパラ言語情報をいかに伝えるか」『Cognition Studies』9(1), Japanes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46-66

논문투고일 : 2015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6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6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1월 19일

<要旨>

문말조사 ‘ね’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에 관한 고찰

본 연구는 한국인 일본어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과 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문말 조사 ‘ね’가 사용된 문장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일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인토네이션을 포함한 음성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외국어 학습자와 모어화자와의 대화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 교육에 있어서 음성적인 특징에 대한 교육은 오랫동안 중요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문말 조사 ‘ね’와 그 음성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ね’의 발화에 대하여 피치패턴, 전체 및 문말 조사 ‘ね’의 발화 지속 시간, 피치의 폭, 강세의 폭, 모음의 F1, F2의 수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ね’와 ‘ね’의 문장에서의 길이의 실현 비율 이외는 학습의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초급, 중급 학습자 모두 일본어 모어화자와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일본어 음성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 study on acoustic phonetic features of the sentence-final particles ‘NE’

The report is going to study phonetic features regarding with Japanese language ability targeting Korean beginner and middle-class learners of Japanese language and with a contrast viewpoint to study phonetic features of Japanese native speaker.

Through the report we are going to show difference of sentence used the sentence-final particles’s ‘NE’ expressed which is spoken Japanese native speaker and Korean Japanese learners, to suggest necessity of systematic teaching from beginner lever class of Japanese learning including phonetic features according to speaker’s intention of expression, to collect fundamental data supply the demand.

The phonetic features involving intonation have several functions and the difference play an important role to bring misunderstanding between conversation of foreign leaner and native speaker. In spite of importance of phonetic features, we have not recognized importance of education on phonetic features about pronunciation education, but recently we realize the important. So we are going to study focusing the sentence-final particles’s ‘NE’ and phonetic features.

The study continues pitch patterns, containment time whole and sentence-final particles’s ‘NE’, width of pitch, width of intensity, F2 and F2 rate for vowel regarding with speaking of Korean Japanese learners and sentence-final particles’s ‘NE’ of Japanese native speaker among Korean beginner and middle-class level learners regardless the process of learning level expect expression ration of ‘NE’ and sentence is uesd ‘NE’.

We suggest a systematic teaching about phonetic features according to expression intention of speaker on the basis of results of the report.